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26.(목) 11:00 이후(11. 27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11. 25.(수)

국토와 환경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

- 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개최,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국토·환경계획 연계 강화
- 지역 성장거점 조성, 공간정보 공동활용 등 실질적 협력 확대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홍지선)와 **기후에너지환경부**(장관 김성환)는 11월 27일(금) 서울에서 **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**(공동의장 :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,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)를 개최*하고, 「**2026~2040 국토·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**」을 논의한다.

* (참석)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,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

○ 이번 추진방안은 현재 수립 중인 '**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**(2026~2040)'과 '**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**(2026~2040)'의 **연계성**을 높이고, 부처 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.

○ **국토·환경계획 통합관리***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**국토계획**과 **환경계획**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**상호 연계·보완**하는 부처 간 협력 과정이다. 두 부처는 지난 **2018년**과 **2019년**에도 **협의회**를 **개최**하여 **계획기간을 일치**시키고, '**2020-2040 국토-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**'을 수립한 바 있다.

*「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」

□ 이번 통합관리 추진방안은 지난 2019년 마련한 **5대 전략의 기본 틀**을 유지하면서, 5극 3특 균형성장, 국토생태축 연결, 기후위기 대응,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·환경 관리 등 **변화된 정책 여건**이 **반영**되었다.

< 국토·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>

❶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
❷ 국토생태축 연결과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의 균형
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국토환경 조성
❹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·환경 공간 구현 및 관리
❺ 국제적 환경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

□ 수정된 5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**첫째,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**을 위해,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·생활권을 육성하고,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·생활권을 연계하는 다핵 균형국토를 조성한다.

○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광역권-생활권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에 맞춰 권역별 도시환경관리 강화 및 환경 기반시설(인프라) 최적 연계·운영을 도모하고, 광역 전력망 확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다.

□ **둘째, 국토생태축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국토이용**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생태축 연결·복원, 도시 생태공간 확충, 보호지역 확대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정주 공간의 녹지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하고, 개발 과정에서 생태축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선순환을 도모한다.

□ **셋째,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국토환경 조성**을 위해 양 부처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 추진한다.

○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 전력 공급, 산업·수송 탈탄소화,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추진과 함께, 자연기반해법 등을 통한 기후적응과 기후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 조성,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, 방재시설 확충과 예방적 유지·관리 체계를 통해 국토 회복력을 높인다.

□ **넷째,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토·환경 관리**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AI 시티 조성, 가상현실(디지털 트윈) 기반 국토관리와 미래·친환경 이동수단(모빌리티) 혁신을 추진하고,

○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공지능, 위성 기반 국토환경 통합 감시(모니터링) 및 오염관리를 강화한다.

□ **다섯째, 국제적 환경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**를 위해 비무장지대(DMZ) 및 접경지역 등의 경제·생태관광 협력과, 한반도 기후·환경 협력 다변화 모색, 탈탄소·생물다양성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.

□ 아울러, 5대 전략 외에도 국토·환경계획의 연계가 **구체적인 정책과제**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부처 간 협력방안**도 논의한다.

○ **지역 성장거점 조성**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**전력·용수의 공급**과 **지역 재생에너지 생산·활용 활성화** 등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, **국토공간정보와 환경정보의 공동활용**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지역개발·생태관광 연계 등 **협력사업**을 **지속 발굴**하고,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**공동 성과지표 마련** 등도 **실무협의체**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두 부처는 **지방정부 차원**에서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관련 계획 수립지침**을 **개선**하고 **통합관리 지원방안**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□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"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 **급변하는 여건** 속에서 **국토의 균형성장**과 **환경의 지속가능성**은 **함께 실현**해야 할 **중요한 국가적 과제**"라며,

○ "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, **지역의 성장**과 **환경의 가치**가 **조화를 이루는 국토**를 만들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□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"**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**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"라며,

○ "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생태축 보전과 탄소중립, 기후위기 대응 등 **환경적 가치를 국토공간에 실질적으로 구현**하고,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익진 (044-201-3646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욱 (044-201-3651)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	책임자	과장	손명균 (044-201-7270)
		담당자	사무관	현세환 (044-201-727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개최 계획**

□ 추진배경

○ 제5차 국토종합계획('20~'40) 및 국가환경종합계획('20~'40)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양 계획 간 상호 연계·협력 강화 방안 협의

□ 협의회 개최 개요

○ (**일시·장소**) '26.11.27(금), 10:30~12:00, 서울 회의실(광화문역 인근)

○ (**참석자**) 국토부국토도시실장, 국토정책과장, 기후부기획조정실장, 환경정책기술담당관, 국토환경정책과장, 민간위원시민사회·학계·관계기관 등 20여 명

○ (**주요내용**) ①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안) 발표, ②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(안) 발표, ③계획 간 연계·협력 강화(안) 발표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		주요내용	비고
10:30~10:35	(5′)	개회 및 참석자 소개	
10:35~10:40	(5′)	인사말씀	실장
10:40~11:10	(30′)	안건 발표 (각 10분) ❶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❷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❸ 국토·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	국토연 환경연
11:10~12:00	(50′)	종합 토의	